

## 教科課程의 編成과 運營

李 慶 燮

(慶北大 教育學科 教授)

### I. 問題의 提起

大學院教育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週期的인 育成方案을 모색하러던 대학원교육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地圖와 같은 바람직한 教科課程이 編成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大學院教育의 質的 向上의 關鍵이다. 大學院이 명실공히 最高의 專門人養成機關의 역할을 遂行하러던 人間의 高等精神機能을 開發하는 計劃이 필요한데 그 계획을 科目名으로 明示해 놓은 것이 大學院의 教科課程이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 나라 大學院의 教科課程을 음미해 보고 大學院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教科課程의 編成原則을 밝히고, 편성된 教科課程이 學問的 適合성을 지닌 것이라면, 그것을 效率的으로 운영할 方針을 項目別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教科課程의 編成原則

大學院의 教科課程은 대학원의 碩·博士課程의 教育內容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런 課程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過程을 系列的으로 밝혀 놓은 것이다. 따라서 그 編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學部教科課程과의 連繫性

大學院의 教科課程은 學部 教科課程에 기초하여 그 내용이 分化·深化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學部 教科課程은 大學院 教科課程 編成을 위한 幅을 마련해 주며 대학원교육의 質的 水準의 한계를 정해 주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대학원 교과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학부 교과과정을 몇 개의 기본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영역들을 심화시킨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學部 및 碩士課程, 碩士課程과 博士課程의 科目名에는 상당히 유사한 것이 다소 있게 된다. 예로는 이런 科目들이 각 專攻分野에 相通하는 共通科目이라고 불러진다.

이런 共通科目 몇 개가 核心으로서 順次的으로 배열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觀點 또는 視角에서 어떤 主題들을 중심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강하게 접근해 가느냐가 同一學科의 各 專攻分野라고 보아진다. 그래서 학부의 各 科 교과과정은 몇 개의 영역이 有機的으로 관련지어져 있는 것이라면 大學院의 教科課程은 그런 영역들이 전공영역으로 浮刻되고, 그 전공영역이 共通科目과 有機的인 관련성을 지니면서 專攻科目, 選擇科目 또는 副專攻 科目들로 하나의 독립성을 지닌 조직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 교과과정과 대학원 교과과정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학부 교과과정의 영역과 대학원 전공분야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2. 각 專攻別 碩·博士課程의 目標設定

각 專攻別 碩·博士課程의 목표들은 대학원 신입생의 현재 상태를 起點으로 보고 각 課程을 바람직하게 履修한 院生像을 그린다는 뜻이다. 이 院生像은 대학원의 각 課程別 敎科課程을 編成케 하는 指導指針的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교과과정 편성시, “교과과정은 時代 혹은 學問에 적합해야 한다,” “理論에만 置重해야 한다,” 혹은 “이론과 응용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등에 관한 논의는 결국 그 課程을 마친 院生像, 즉 課程目標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設定 없이 교과과정이 편성될 때 學問的 體系性, 科目間的 關聯性, 先修·後修科目의 系列性, 순수이론면과 응용면과의 整合性 등을 보장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편성 혹은 改正의 根據가 확고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目標設定이라는 前提 없이 敎科課程을 평가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先進 外國大學의 대학원 敎科課程들이 자기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닌 것도 確固한 哲學하에서 이런 目標들을 默示的이든, 明示的이든 간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여러 先進大學들의 敎科課程들을 보고 이런 저런 科目들을 끌어 모아서 하나의 교과과정을 편성한 것이 妥當性을 지니기는 힘들 것이다.

## 3. 必須와 選擇, 또는 主專攻과 副專攻의 學點比率 決定

이런 學點比率는 設定된 目標達成을 위한 概略的인 設計이며 科目選定の 근거를 마련해 준다. 必須履修學點이 선택이수학점보다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專門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資質規定의 下限線이 비교적 높아지는 반면에, 교과과정이 硬直性을 띠게 되고 他專攻分野와의 有機的인 관련성이 결여된다. 必須 중에서 共通 必須의 학점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로 전공의 내용이 學部의 내용과 범위상으로 비

슷해지고 다만 내용의 깊이가 다소 있게 된다. 그래서 한 학과의 專攻分野로 區分 設置한 本來目的의 特徵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약점을 지닌다.

主專攻과 副專攻의 학점 비율은 대개 必須와 選擇의 경우와 비슷하나 副專攻이라고 했을 때 學點을 取得하는 데 選擇보다 더욱 제약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專攻의 성격을 깊거나 좁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소 그 幅을 넓게 보는 것이 된다. 그래서 깊이는 있다고 할 수 없으나 幅이 넓으므로 他專攻分野와의 有關係이 깊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主專攻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이상과 같은 학점 비율 결정은 明示된 각 課程의 專攻特徵이 크게 부각되는 것이어서 專攻性格이 각 대학마다 多樣性을 띠게 되는 主要因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大學院의 敎科課程編成을 생각할 때 大學院 當局이 敎科課程編成에 관한 一律的인 지침을 모든 學科나 專攻에서 준수하도록 요구할 때 각 學科나 專攻마다의 特性이 나타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각 學科마다 또는 專攻마다의 目標가 相異한데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점 비율의 相異點을 교과과정에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學院 當局은 敎科課程의 編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權限을 該當學科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예는 醫學科의 각 專攻分野와 英語英文學科의 각 專攻分野가 一律的인 指針에 의한 敎科課程編成이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 4. 先修·後修科目의 決定

必須·選擇 또는 主專攻·副專攻의 學點比率가 決定되면, 결정된 비율에 따라 과목이 選定되어야 한다. 이 때에 問題가 되는 것은 科目에 대한 學點의 基本單位, 科目名, 科目을 履修해 갈 系列 등에 대한 결정이다.

基本學點單位는 주로 3學點 單位, 4學點 單位로 결정하게 되는데, 3學點 單位制는 一定科目의 內容을 1學期에 集約的으로 이수시키려는 意圖에 의한 것이고, 4學點 單位制는 內容을 좀더 크게 묶어서 2學期間에 걸쳐 履修시킨다는 의도의 반

영이다. 따라서 前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수하는 내용이 後者에 비해서 많아지는 경향이 있게 되고, 後者에 따르면 내용은 前者에 비해서 多少 적으나 정해진 내용을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습득하게 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科目名の 결정은 上述한 基本學點單位와 매우 유관하다. 즉 3學點制의 科目名은 내용 위주의 것이 많다. 예컨대 人事管理, 財務行政, 勞働法 등으로 그 이름이 붙여지며, 4學點制는 科目名の 末尾가 다양해진다. 예컨대 세미나, 原書講讀, 開發, 評價, 研究, 基礎, I, II 등이 科目名の 末尾에 붙는 수가 많다.

科目의 系列化는 주로 共通科目과 專攻必須科目에 단 한정된다. 一般原則은 先共通科目, 後專攻必須科目으로 系列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때에 있어서 共通科目은 學科의 基本領域과 有關하므로 難易의 差는 별로 없으나 專攻必須科目은 반대로 難易의 差가 심하다. 따라서 共通科目의 配列時에는 專攻分野들의 統合性에 주의하고 專攻必須科目의 系列化 때는 科目內容의 水準高下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專攻選擇科目의 配列時에는 이미 系列化된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系列의 補完的 役割이나 幅을 넓혀 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 有意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에 明示될 科目數의 決定은 敎科課程編成에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 예를 들어서 共通, 必須, 選擇科目數를 院生의 課程履修學點의 最下線에 맞추느냐, 最下線의 두배로 결정하느냐는 것은 院生의 學點取得을 위한 科目選別權과 매우 관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明示科目數가 많을수록 專攻別 敎科課程은 충실성을 더욱 지니게 된다.

### Ⅲ. 敎科課程의 運營

敎科課程은 일종의 文庫이다. 이것을 活性化하는 것은 그것의 運營이다. 따라서 훌륭한 敎科課程이나, 아니냐는 결국 그것의 運營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마련된 大學院의 敎科課程을 바랄지하게 運營하는 데 필요한 그 방침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敎科課程運營에 실질적인 책임을 진 長은 敎科課程에 明示되어 있는 科目들을 누락함이 없이 모두 開講해야 할 것이다.

敎科課程에 明示되어 있는 科目數는 大學院의 활동 규모를 말해 주며 그런 科의 開講은 課程의 目標達成에 적절된다. 또한 院生側에서 보면 開講科目數는 各자의 個性에 알맞는 과목을 選定, 履修할 기회의 幅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각 大學院의 敎科課程에 明示된 科目數를 美國 大學의 것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科目數의 比較

學 科	韓 國	美 國
英語英文學科	40	111
史 學 科	83	127
生 物 學 科	41	55

※ 이것은 美國의 州立, 私立大學 각 2個校, 韓國의 國立, 私立大學 각 2個校의 것을 平均한 것임

이상의 결과를 볼 때 兩國의 差는 엄청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동일 學科일지라도 美國의 學科들은 韓國에 비해서 科目數上으로 볼 때 課程에서 취급하는 學問領域들을 세분하고, 그것을 多樣한 方法으로 강의하도록 폭이 넓고 수준이 깊게 敎科課程을 편성해 두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만약 교과과정 운영의 책임자가 財政的 형편 및 기타 사정에 의해서 교과과정에 明示되어 있는 科目數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킨다면 그 科目數는 예상 외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어떤 學科가 碩士課程에 4개의 專攻分野를 두고 있다고 하자. 우리나라의 現行처럼 院生들이 3學點單位의 3개 科目을 이수할 수 있을 때, 科目數를 最下線으로 축소시킨다면 각 專攻의 共通科目 1, 각 專攻마다 專攻必須科目 1, 도합 5개 科目만을 開講(실제로 학점이수할 수 있게 강의한다는 의미)하여도 院生들은 所定의 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1科目은 他專攻에서 개강한 과목을 副專攻科目으로 이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대학들이 미국에 비해 財政面에

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開講科目數를 先進國 大學처럼 늘릴 수는 없으나 大學院의 內實化를 기하기 위하여 既成 學科數를 줄이고 存立學科의 院生定員을 대폭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教科課程에 明示된 科目들을 해마다 더욱 많이 開講해 가야 할 것이다.

(2) 院生들이 學位論文을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이나 技能 함양에 적절되는 科目을 개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논문다운 논문을 쓰려면 자기 專攻에 대한 폭 넓은 素養만으로는 未洽하다. 거기에는 設計能力, 問題提起能力, 文章構成 및 表現力, 論理的 一貫性을 유지하는 能力, 資料의 批判力, 內容의 集約能力, 結論導出能力 등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學部를 갓 졸업하고 바로 碩士課程에 진학한 院生이 課程履修를 해가면서 겨우 1年餘 지나서 所定의 學位論文을 쓸 수 있다고 기대하는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質 높은 既成論文들을 많이 讀破함으로써 論文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體得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1年 남짓한 研究生生活을 했다고 하여 體得되는 것은 아니다.

'50年代의 우리 나라 대학처럼 院生이 극히 소수이고 指導教授와 함께 연구실에서 지낼 수 있을 때는 教授의 연구를 미미하나마 가끔 돕기도 하고 심부름을 함으로써, 교수와의 인간관계가 친밀해져서 친절하고 철저한 지도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처럼 院生數가 매우 많을 때는 이상과 같은 지도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多數 院生들에게 論文作成法에 관한 科目을 개강해 주어서 이 방면에 관한 실력을 길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이런 科目의 운영은 專攻科目의 운영과 相異한 점이 많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多數 教授에 의한 강의, 院生中心의 토의, 事例研究, 論文作成實習, Agenda의 發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科目은 멀리 볼 때 學位論文의 質의 向上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되기도 할 것이다.

(3) 院生들의 學問的 資質을 높이기 위해서 開設된 모든 科目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한 과목담당 교수들이 적어도 한 科目當 3~4권의

教材를 채택하고 每週 1회, 이들 教材活用に 의한 課題物을 제출케 하고 제출한 과제물 중심으로 院生間의 討議가 活潑하게 수행되도록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大學院教育이 이론에 치중한 교육이 되어서는 아니지만 특히 碩士課程에 있어서는 專攻面의 諸理論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하고, 博士課程에서는 諸理論의 比較, 批判과 아울러 이들 이론을 종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核心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教材 중심의 과제물에 의한 院生討議가 수업의 주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나라의 大學院 수업은 이런 세미나보다 教授一邊倒의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이런 수업이 계속될 때 院生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하는 소위 탐구력의 배양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연구 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의존심이 많은 힘 없고 지조 없는 지성인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학문의 자유는 수업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작하고 討議過程에서 衆智가 모아지며, 이런 衆智가 누적될 때 인간의 高等精神機能이 開發되고 지성에 입각한 탐구력과 창의력이 배양된다. 따라서 세미나 형식의 수업이 院生들에게 生活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4) 大學院의 教科課程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유명한 國內外의 문헌과 研究資料가 확보됨과 아울러 이들 문헌과 자료를 손쉽게, 제빨리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教育法에 明示되어 있는 大學의 目的을 보면,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필요한 學術理論과 그 應用方法의 教授, 研究와 指導의 人格陶冶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大學이 명실공히 高等教育 및 研究機關으로서 專門性 陶冶의 殿堂, 文化의 總本山, 深奧한 學術의 淵源의 役割遂行을 하려면 國內外의 先行研究物 또는 研究資料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文獻, 研究資料들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教授나 院生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자유롭게, 신속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은 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나라는 최근에 이르러 外國圖書 구입이 용이해졌고 圖書確保에 각 大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러나 名門 外國大學에 비하면 우리들의 圖書 사정은 너무나 빈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도서관도 최신 機器化한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도서와 연구 자료 없이 研究活動한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들은 이런 文獻 및 연구 자료 마련에 앞으로 더욱 拍車를 가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5) 동일 地域內의 각 大學들은 각 大學院 敎科課程에 明示되어 있는 동일 科目들을 많이 찾아내어, 한 대학에서만 그런 과목들을 개강하여 院生들이 소속대학에 관계없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기회가 많아질수록 각 대학들은 무엇보다도 경미 절감이라는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일정한 대학에서만 그런 科目들을 數年 동안 개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으로 순환하면서 개설하거나 大學間의 協議에 의해서 그 科目들을 按配·開講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院生의 增員趨勢에 비해서 敎授增員이 未達하는 형편이므로 각 대학들이 一定科目들을 가르칠 敎授確保時에도 이런 制度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면 교수 입장에서는 소속대학에서 한 學期에 강의하는 科目들의 數가 줄게 되어 研究活動에 더욱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동일 科目 擔當敎授끼리 자주 모여 科目內容에 대한 協議를 할 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共著物을 出版할 수도 있을 것이다.

院生들의 입장에서 보면 他大學의 有名敎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동일 地域內 專攻院生들끼리 유대를 돈독히 하며 他大學 文獻의 활용 기회도 가지게 된다.

現行 각 大學院의 學則 또는 規程에 의하면 ‘他大學院 履修學點認定’이라는 條項에서 “國內外的 다른 大學院에서 이수한 학점은 本 大學院과 類似科目이고 取得學點이 B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主任敎授와 院長의 승인을 얻어 인정된다. 단 認定學點은 6學點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大學이 많다. 현재 이 조항의 활용이 어느 정도이나, 특히 동일 地域內에 있는 大學間에서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또한 구태여 6學點 이내에서 인정된다고 하는 것도 타당하냐의 문제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학점 취득의 上限線을 上向調整도 생각해 볼 만하다.

大學이 명실공히 知性的 殿堂이라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協議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결된다고 해서 각 대학의 전통과 긍지가 손상되지도 않고 대학의 위신이 하락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6) 大學院의 各科 敎科課程은 개선을 요할 때는 定期的으로 또는 수시로 개정되어야 한다. 社會變化는 어느 시대보다도 심하고 학문의 접근 방법 및 技法, 主題 등도 사회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확정된 敎科課程도 時代性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妥當性이 없는 改正은 禁해야 하지만 先進大學들의 敎科課程을 定期的으로 참고·검토하여 改正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科所屬 敎授들의 진지한 討議에 의해서 體系的이고 合理的인 改正을 계속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